

2024,10,31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38-8(하제마을) 팽나무 아래에서

강형철

시인

2020년, 생장추 수령 537(±50)으로 측정된 팽나무가
국가자연유산 신규지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선포되던 날
팽나무 아래에는 국가유산청 높은 사람과 군산시장을 비롯
이른바 관계자들이 행사를 벌였다
이른바 높은 사람들이 축사를 하며 자랑스러워했고
'흙소리 타악공화국'의 공연이 이어지며
하제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회고가 이어진 뒤,
행사는 끝났다
서둘러 기념식장이 비워졌다

2020년 10월부터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팽팽문화제를 마흔 여섯 번 열었던 '평화바람' 식구들은
몇 명의 하객으로 간단히 처리되었고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팽나무만 천연기념물 위용으로
담담하게 미군부대 탄약고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선 문정현 신부님의 목소리가
팽나무 아래 공터에서 울렸다

뭐라고? 644가구 2천 여 주민들이 살기위해 떠났다고?
그 주민들이 쫓겨나간게 아니고 제 발로 떠났다고?

살던 집 부서지고 가재도구 아직도 곳곳에 파묻혀 있고
그 울음소리 원망의 소리 여전히 쟁쟁한데...
마을에 살다가 미군에게 총맞아 죽은 아버지를 그리는
70 노인이 자신의 텃자리가 여기라고 울며 울부짖고 있는데
뭐라고! 살기 위해 떠났다고...
그게 말이야!
살기 위해 떠났더니! 쫓겨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 쫓겨난거지!
그게 말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똥구멍에서 뒷목으로 철사줄이 올라왔어
나는 말을 못했어 꿈쩍도 못했다고!

분노가 쳐올라와 몸뎡이가 딱 굳어 아무말 못 했다고!

순간, 하교길에 장갑차에 깔려 죽은 동두천의 효순이 미순이가
아니 1945년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한 이후 저지른 수 많은 범죄들이
아니 계속되는 전폭기 이착륙 소리에 귀가 울려 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 이곳 옆의 수라갯벌은 물론 이른바 새만금 사업으로 죽어가고 썩어가는
뭇 생명들이 팽나무 주변으로 몰려오면서
갑자기 세상이 더더욱 캄캄해졌다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말을 전해주고
몇 해 전 홀연히 떠난 김종철* 선생님이 공터로 돌아오고 있었다

건물 5층 높이인 20m, 가슴 둘레 7.5m
밑둥 3m 높이에서 남북으로 넓고 균형있게
가지가 퍼져 수형이 아름다우며 생육상태가 양호하다는
천연기념물 580호 하제마을 팽나무는
아무 말 없었다

지금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인 주소가
SOFA협정에 의해 U.S.A 캘리포니아 사서함 몇 호로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 팽나무가 선 땅 몇 오름 제외하고
주변을 모두 다 미군에게 공여되어
미국의 주소지로 바뀌어 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야 간신히 오늘의 현실이 어디인지
우리들이 알기 시작했다고 격려해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랬다!

아무말 없이
굳게 서서

당당하게 천 개의 손을 흔들며
'600년 팽나무'는 일어서고 있었다

• 김중철(1947~2020): 문학평론가. 1991년 『녹색평론』을 창간했고, "기본소득"을 중심과제로 제창하였다.